

쌀 소비 감소 ... RPC의 수난

(미국종합처리장)

광주·전남 17곳 지난해 66억원 적자 ... 눈물의 통폐합도 올해 코로나19로 외식 수요 급감에 학교 급식 판로 막혀

광주·전남지역 17개 미국종합처리장(RPC)이 지난해 66억원 적자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역 RPC들은 RPC간 통폐합, 신사업 발굴 등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1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RPC들의 당기순실은 총 56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RPC 1곳당 평균 2억9000만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적자를 낸 RPC는 17개로, 적자규모는 66억 7900만원에 달했다. 지역 RPC 적자영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52억원(1곳당 1억8500만원) 흑자영입을 한 뒤 지역RPC들은 지난 2018년을 빼고 매해 적자영입을 이어갔다. RPC 적자폭은 2012년 39억원, 2013년 84억원에 이어 2014년 126억원으로 절정에 달했고 2015년(-58억원), 2016년(-66억원), 2017년(-31억원)에도 적자를 내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역RPC들은 지난해 8개 도(道) 지역 가운데 쌀 판매가 가장 많이 줄었고, 재고는 가장 많이 늘어났다. 올해 1-5월 전국 RPC 정곡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t(0.9%) 증

가한 43만2000t으로 집계됐다. 전남 RPC는 지난해보다 9000t(-12.2%) 줄어든 6만5000t을 판매했다. RPC 누적 판매량이 줄어든 지역은 전남을 포함 강원과 전북(각 -1000t)뿐이었다. 전국 RPC 정곡 재고량은 감소했지만 전남 등 4개 지역은 쌀 재고가 늘었다. 5월 말 기준 전국 RPC 재고는 36만t으로, 지난해(39만6000t)보다 3만6000t(-9.1%) 줄었다. 반면 전남 RPC 재고는 5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3000t(5.8%) 늘어 8개 도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전남지역과 경남(2000t), 강원·충북(각 1000t)은 재고량이 늘어난 반면 충남(-2만t), 경기·전북(-8000t), 경북(-2000t) 등은 재고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RPC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데는 쌀값 등락의 영향이 컸다. 지난 2017년 말 벼 수매가(40kg)는 유례없이 떨어져 4만~4만2000원 선을 이뤘지만 이듬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매가는 50% 된 6만~6만2000원이 됐다. 수매가는 올랐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았고 공장 운영비, 포장재, 인건비 등 지출로 인

■지역별 RPC 판매·재고 증감

(5월 누계 기준·단위:1000t(정곡))

지역	판매			재고		
	'19	'20	증감	'19	'20	증감
전남	74	65	-9	52	55	3
강원	22	21	-1	22	24	2
전북	86	85	-1	18	19	1
충북	21	23	2	21	22	1
충남	75	79	4	45	43	-2
경남	32	36	4	50	42	-8
경기	56	61	5	78	70	-8
경북	40	46	6	94	74	-20
기타	22	16	-6	16	11	-5
합계	428	432	4	396	360	-36

(자료:농협 전남본부)

한 적자는 RPC가 떠안게 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급감했고, 친환경쌀 생산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은 학교 급식 판로가 막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역농협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시설 위주로 RPC를 통합 운영하며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담양 2곳(금성·수북)과 나주(남평·다시·동강·마한) 4곳 등 6개 농협RPC를 각각 통합하며 버건조저장시설(DSC)을 도입하는 등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이종혁 금성농협 RPC 장장은 "전남지역 벼 수매가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지만 쌀값이 그에 비해 오르지 않았고 옆친 데 달친 격으로 지난해 세 차례의 태풍을 겪으며 벼 품위가 좋지 않았다"며 "해마다 쌓이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친환경쌀과 브랜드쌀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올릴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가 풀려 오는 8월부터 나오는 햅쌀은 제값 받고 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7개 RPC 가운데 10곳을 제외한 17곳이 적자를 봤다. 순천통합(-21억6000만), 무안지사(-9억3400만), 옥천농협(-7억1800만), 보성통합(-4억6100만)RPC 등 상대적으로 생산 규모가 큰 RPC의 적자폭이 컸다. 이어 황산농협(-3억8300만), 군서농협(-3억5900만), 완도농협(-3억1000만), 선진농협(-2억9000만), 화산농협(-2억2900만), 구례통합(-1억5700만), 다시농협·도곡농협(각 -1억3600만), 수북농협(-1억3400만), 동강농협(-9900만), 장성통합(-8400만), 마한농협(-6700만), 광주통합(-2200만) 등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남평농협(6억6700만), 영광통합(1억5000만), 금성농협(9400만), 함평통합(6800만), 강진통합(3700만), 복산농협(3500만), 영암통합(1600만), 흥양농협(500만), 곡성농협(400만) 등은 흑자를 냈다./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1.05 (+3.00)
- ↑ 금리(국고채 3년) 0.874(+0.014)
- ↑ 코스닥 735.40 (+0.02)
- ↑ 환율(USD) 1213.90 (+6.70)

전력거래소, 41명 규모 신입사원 공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전력거래소가 41명 규모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한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30일 정오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신입직 25명, 경력직 5명, 별정직 3명, 공무원 8명 등 41명이다. 신입직은 ▲사무직 9명 ▲기술직(전기) 16명이며, 경력직은 ▲발전·송전설비 운영 전문원(교대) 3명 ▲건축 2명, 별정직 ▲번호사 2명 ▲간호사(반일) 1명이다. 발전·송전설비 운영 전문원(교대)의 경우 해당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번호사·간호사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원 세무 모집인원은 ▲사무보조(업무지원) 3명 ▲사무보조(전화상담·전일) 1명 ▲사무보조(전화상담·반일) 3명 ▲운전원 1명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채용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극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서 접수 시에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면접 전형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채용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 상담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건설현장에 종합지원 이동차량을 배치·운영한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출근·점심시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종합지원 이동차량에서는 근로자들에

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하고, 팔 토시와 마스크 등 기념품과 개정 법률 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건설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개정 법률과 공제회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건설업체·운영한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출근·점심시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종합지원 이동차량에서는 근로자들에

수입·수출 대폭 감소 ... 무역수지는 흑자

광주·전남 5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입과 수출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본부세관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0.5% 감소한 25억8300만 달러, 수입은 47.5% 감소한 17억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오히려 전년 대비 154.3% 증가한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39.5% 감소한 7억4600만 달러,

수입은 0.4% 감소한 5억1100만 달러를 기록해 2억3500만 달러 무역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51.2%)·반도체(19.4%)·가전제품(32.6%)·기계류(50.0%)·타이어(51.7%)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7%)·기계류(10.6%)·고무(18.7%)가 증가했으며, 가전제품(50.0%)과 화공품(23.7%)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수출은 전년보다 26.1% 감소한 18억3700만 달러, 수입은 55.9% 감소한 12억76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6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2020식품대전 참가기업 모집 aT, 8월 말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 참가기업을 8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이 박람회는 10월21-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리드기' 방침에 따라 대회를 진행하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aT 측은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8월31일까지 홈페이지(koreafoodshow.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식품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들은 선발에서 가중치가 부여된다. 지난해 열린 식품대전에는 220여 개 국내 업체가 참가했으며, 국내 구매 담당자(바이어) 66명과 178억원 규모 상담을 이뤘다. 해외바이어 55명과 483건, 6700만 달러 상담 실적을 거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축산 환경 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왼쪽)는 17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맞아 함평축협 가축시장을 찾아 친환경 축산시설 조성을 위해 대청소를 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수목장 14%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남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